

불펜진 '7이닝 무실점' 쾌투...KIA의 지키는 힘

마무리 투수 정해영, 2경기 연속 세이브 달성
필승조 전상현·최지민도 안정적인 투구 펼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불펜진이 철벽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KIA는 26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2-1로 이겼다.

KIA는 1-0으로 앞선 6회초 선발 투수 양현종이 언달아 불넷을 허용하자 우완 사이드암 임기영을 기용했다. 1사 1, 2루에서 임기영은 나승엽에 스트레이트 불넷을 헌납한 뒤 박승욱을 1루수 땅볼로 유도했다. 그사이 3루 주자 정훈이 홈을 밟았다.

비록 동점이 됐지만 윤동희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역전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7회초 좌완 필승조 최지민이 배턴을 이어받았다. 최지민은 고승민을 유격수 파울 플레이로 처리했고 빅터 레이에스와 전주우를 각각 헛스윙 삼진, 좌익수 뜬공으로 묶었다.

8회초 출격한 우완 셋업맨 전상현도 삼자범퇴로 이닝을 정리했다. 노진혁을 유격수 땅볼로 잡았고 정훈과 김민성은 외야 뜬공으로 봉쇄했다.

8회말 1사 3루에서 타진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적시타로 다시 리드를 되찾은 KIA는 9회초 마무리 투수 정해영을 투입했다.

터프 세이브 상황에 등판한 정해영은 나승엽을 좌익수 뜬공으로 막은 후 박승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하며 아웃카운트 2개를 먼저 올렸다.

이후 정보근에 우전 안타를 내줬지만 후속 타자 고승민을 상대로 3구 삼진을 기록하면서 팀에 승리를 안겼다.

키움 히어로즈와 개막전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펼친 KIA 구원진은 리드 사수에 성공했다.

9회를 책임진 정해영이 시즌 첫 세이브를 달성했고 전상현과 최지민도 1이닝씩 던져 실점 없이 막았다. 좌완 사이드암 광도규는 점수 차가 2점(7-5)으로 줄어든 6회 2사 1루에서 송성문에게 삼진을 빼앗으며 급한 불을 껐다.



2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 대 키움히어로즈의 경기, 9회 초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역투하고 있다.

KIA는 지난해 23세이브를 수확한 정해영과 16홀드를 쌓은 임기영, 13홀드를 적중한 전상현의 활약에 힘입어 불펜 평균자책점(3.81) 2위에 올랐다. 최지민은 프로 2년 차에 12홀드로 두 자릿수 홀드를 작성했다.

올해 KIA 마운드의 허리가 더욱 탄탄해 보인다. 불펜진은 2경기에서 7이닝 2피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합작했다. 올 시즌도 막강한 불펜진은 KIA의 강력한 무기다. 이슬비기자

이정후, 타율 0.343 시범경기 마무리

29일 샌디에이고와 본토 개막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6)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침묵했다.

이정후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와 '2024 MLB 시범경기'에 1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무안타 1삼진을 작성했다.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지 못한 이정후는 13경기 타율 0.343 1홈런 5타점 5볼넷 2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911의 성적으로 올해 시범경기를 마무리했다.

1회 첫 타석에서 이정후는 오를랜드 우완 선발 풀 블랙번의 커터를 받아쳤으나 좌익수 뜬공에 그쳤다. 4회 2사에서는 다시 블랙번의 커터를 노렸으나 1루수 땅볼을 쳤다.

세 번째 타석에선 꼼짝 없이 당했다. 이정후는 볼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블랙번의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으나 스트라이크가 선언돼 삼진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7회 수비를 앞두고 교체돼 경기를 마무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를랜드에 1-3으로 져 15승 12패로 시범경기를 마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펠트 파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본토 개막전을 치른다. 일찌감치 팀의 1번 타자로 낙점된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오를랜드 박효준은 6회 우익수 대수비로 출장했다. 8회 1사에서 타격 기회를 잡았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박효준은 시범경기에서 타율 0.477 1홈런 9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기도 개막 로스터(출전 선수 명단) 진입에 실패하며 오를랜드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K리그1 전복 현대, 30주년 기념 뉴트로 유니폼. (사진=전북 현대 제공)

K리그1 전복, 30주년 유니폼 공개...30일 울산전서 착용

프로축구 K리그1 전복 현대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스페셜 뉴트로 유니폼을 공개했다.

전복 구단은 "30년의 유구한 영광의 역사를 담아 명명한 '피오니에 레거시(Pioneer Legacy)' 뉴트로 유니폼을 오는 30일 울산 HD와의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피오니에 레거시'는 기존의 옛 디자인을 복원한 레트로가 아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복과 아디다스가 뜻을 모아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담아 제작된 '뉴트로' 유니폼이다.

이번 뉴트로 유니폼은 전복의 상징 컬러인 녹색 바탕에 슬리브 라인에는 2000년 이전 당시의 포인트 컬러인 노란색을 더했다.

유니폼 전면에는 전복 최초 로고인 전복다 이노스 엠블럼을 부착해 30주년의 의미를 담았다.

특히 유니폼 뒷면의 배번은 숫자 속에 30주년을 상징하는 '30YEARS' 레터링을 형상화하고 컬러는 영광을 상징하는 골드컬러를 입혀 '뉴트로' 유니폼의 프리미엄과 30주년의 위엄 모두를 갖췄다.

이번 뉴트로 유니폼은 오는 30일 울산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전주에서 열리는 5차례의 홈경기에서 착용할 예정이다.

후면 광고로는 지난 2월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금호타이어 브랜드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뉴트로 유니폼은 오는 내달 2일부터 전복 구단 공식 MD샵을 통해 살 수 있다.

손흥민, 장기 재계약 가능성...토틀넘, 팀 정책까지 바꾼다



30대 선수와 계약 길게 맺지 않았으나 손흥민 실력·태도·리더십 높이 평가해 기존 방향과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 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홉스퍼가 팀 정책까지 바꾸면서 '주장' 손흥민을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 '스퍼스웰'은 26일(현지시간) 토틀넘이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파격적인 연봉 인상과 함께 사실상 종신 계약에 가까운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부로 토틀넘과의 계약이 만료된다. 1년 연장 옵션이 있어, 2026년 여름까지 늦출 수는 있다.

기존의 토틀넘이라면 옵션 발동 후 계약 종료 기준으로 30대 중반이 되는 1992년생인 손흥민과 별도의 재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다.

토틀넘은 30대 선수와 계약을 길게 맺거나 고액 연봉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기량은 물론, 성실한 태도와 남다른 리더십까지 뽐낸 손흥민의 가치를 높이 사 기존 방향과 다른 선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4골8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태국과의 3월 A매치 2연전을 마친 손흥민은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 오는 31일 0시 재개하는 루턴타운과의 리그 일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뉴시스

'신데렐라 스토리' 쓰는 박진섭, A대표팀 데뷔골까지 기록

K3리그에서 시작해 태극마크 달아 태국전서 A매치 6경기 만에 첫 골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의 박진섭이 K3리그에서 시작해 국가대표 골까지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부진했던 조규성(미드필더)이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에 이바지했고,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당시 하극상 논란이 있었던 손흥민(토틀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골을 합작하며 갈등을 완전히 봉합했다.

그리고 한국 축구에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고 있는 박진섭이 A매치 데뷔골까지 기록했다.

박진섭은 3부 리그 격인 K3리그를 통해 성인 무대를 밟았다. 프로팀과 계약을 하지 못한 그는 지난 2017년 대전코레일 소속으로 실업 축구 선수 생활을 했다.

미드필더임에도 득점 2위를 기록하는 실력을 인정받아 2018년 K리그2 안산그리너스로 이적하며 처음 프로 무대를 누볐다.

그리고 2020년 K리그2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1시즌 정규시즌 K리그2 베스트11 미드필더로 선정됐다.

2022시즌에는 K리그 최고의 구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전북으로 둥지를 옮겼다. 이적과 동시에 주전 수비수 자리를 꿰찼고, 2022시즌 리그 베스트11 수비수에 뽑혔다.



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한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앞서 한국 박진섭이 골을 넣은 뒤 김진수와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이후 본격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시작이었다. 연령별 대표를 한 번도 거치지 못했던 박진섭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뽑혀 금메달까지 땀다.

지난해 11월에는 워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에 승선했다. K3리그에서 시작해 태극마크까지 달며 무명 축구 선수들의 롤모델이 됐다.

박진섭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태국전에서 한국이 2-0으로 앞선 후반 37분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도움을 받아 A매치 데뷔골까지 넣었다. A매치 6경기 만에 골 맛을

봤다. 박진섭은 득점 후 그라운드에 무릎 꿇은 뒤 양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다.

박진섭의 활용 가치는 높다. 현재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한 A대표팀에서 황인범(즈베즈다) 등과 짝을 이룰 수도 있으나, 김민재와 함께 중앙 수비수로 출전할 수도 있다.

큰 부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선욱기자

손준호, 중국서 풀려난 뒤 첫 심경 "평범한 일상 감사"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가 첫 심경을 전했다.

손준호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시간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정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에서 쉰 손준호는 지난해 5월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비국가공작인원 수포 혐의로 연행돼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동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10개월여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손준호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정확히 어떤 판단을 받고 석방된 것인지에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손준호는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손준호의 에이전트인 박대연 NEST 대표는 "손준호의 현재 상태는 괜찮다. 본인도 그라운드 복귀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몸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